

도전·개척정신...글로벌 시대 내다본 '해상왕'의 혜안



新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17>

제5부-도전정신과 정의로 빛어낸 역사

①21세기에 장보고를 알아야 하는 이유

장보고에게서 배운다

도전·개척정신 무장	이름 속 글로벌 마인드	위대한 성공 스토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경영모델 벤치마킹
복잡한 정치·경제에 좌절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당나라 1000명 병사 거느린 군중소장 승진	-신라선 공파·공복으로 불려 -중국에선 張保皋 (백의의 동이민족 보호한다는 뜻) -일본에선 張寶高 (재물 숭상하는 일본인 성향 반영)	한·중·일 삼국 正史에 기록 당 '신당서' 동이전·신라전 '당나라 영웅 광분양과 비견' 극한 일 '일본 후기' '속일본기' "선진문화·물품 공급 의존받아"	다량 연안 무역 장악 재당 신라인 일 경제권 독점 재일 신라인 묶어 한·중·일 해상무역 주도	中 햇무리급 도자기 제조기술 습득 강진·해남 도자기 클러스터 조성 고려청자 세계적 도자기 부각

황상석 (사)장보고글로벌재단 사무총장

그렇다면 장보고 대사한테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그는 젊어서 당나라에 건너가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군중소장에 승진하는 등 '위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요인은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그가 복잡한 정치·경제적 상황에 함몰돼 좌절하지 않고 과감하게 '헬 신라'(Hell 新羅)였던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 및 개척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둘째, 장보고의 글로벌 마인드를 배울 필요가 있다. 우선 '그의 이름'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다. 한·중·일에서 그의 이름은 각각 다르게 불렸다.

신라에서는 성(姓)이 없이 공파(弓巴) 또는 공복(弓福)으로 통했다. 신라 관습상 평민은 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지만 성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이두로 표기하면 弓福에서 '弓'의 한자 뜻을 따면 '활'이고 '福'의 음을 따면 사람을 가리키는 '보'이니, '활보'라는 의미이다. 즉,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張保皋'로 표기됐다. 이 이름의 해석은 '백의의 동이 민족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보호할 보(保)와 언덕 고(阜)를 이름으로 썼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에는 '張寶高'로 한자를 다르게 표기했다.

국제화 개념 태동하기 이전

바다 경영한 최초의 '세계인'

기업가 정신·세계화 마인드 계승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로 삼아야

재물을 숭상하는 일본인의 성향에서 보물 寶와 높을 高자를 썼던 것이다. 오늘날도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고유 이름과 현지에서 활동하기 편한 이름 등을 갖고 있는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장보고가 위대한 성공스토리를 남겼던 점을 배우자. 그의 생애는 한·중·일 등 삼국의 正史에 기록됐다. 이는 그의 성공스토리가 글로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나라 역사서인 '신당서' 제220권 동이전과 신라전에 '장보고의 스토리'가 수록됐는데, 이 사서를 편찬한 송기(宋祁)가 왜 외국인용을 기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송기는 "아마 원망과 독해로써 서로 끼이지 않고 나라의 우환을 먼저 생각한 것은 진(眞)에 지해(祗礙)가 있고 당에 광분양(郭汾陽)과 장보고가 있는데 어찌 동이(東夷)에 인재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는 '나라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국어(國語)의 잠언을 인용하면

서 장보고가 안록산의 난을 평정했던 당의 영웅 광분양(郭汾陽)과 비견된다고 극찬했던 것이다. 이는 장보고를 우국지사의 모델로 내세움으로써 자국민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심어주려는 의도에서 편찬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사서인 '일본후기'(日本後記), '속일본기'(續日本記), '속일본후기'(續日本後記)등에도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일본후기에는 일본 정부가 장보고 선단과 독자적인 무역관계를 설정하고 신라와 당으로부터 선진문화와 물품의 공급을 장보고에게 의존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조공무역이 대세를 이루던 국제교역 패러다임을 민간무역으로 바꿨던 장보고의 업적을 높이 샀기 때문에 자국의 정사에 그의 스토리를 적었던 것이다.

넷째, 당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신라인 디아스포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경영을 주도했던 장보고의 경영모델을 배울 필요가 있다. 장보고는 신라의 첨단산업인 해상운송기술을 활용하여 다량의 연안무역을 장악한 재당 신라인과 일본경제권을 독점했던 제일 신라인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한중일 해상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 모델을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ICT를 활용해 180개국에 흩어져 있는 720만명의 코리아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묶어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다.

다섯째, 돈을 버는 기술보다 고기를 잡는 장

보고의 경영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는 중국 월주요에서 생산된 햇무리급 도자기를 신라와 일본에 유통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도자기 제조기술을 습득, 강진과 해남에 도자기 클러스터를 조성했던 것이다.

이러한 선각자의 혜안 때문에 고려시대에 강진에서 제작된 삼강청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로 부각됐던 것이다. 이처럼 장보고의 성공스토리와 글로벌 경영 비결은 어두컴컴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경제우위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불어 살고 번영을 향유하려면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에 '글로벌(Global)을 실천했던 장보고 대사를 멘토(Mentor)로 삼자는 것이다. 불세출의 위인이었던 그의 기업가정신과 글로벌 경영을 계승 발전시켜서 오늘날 기업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주거나 고민 또는 해법을 풀어주는 위대한 스승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구루'(guru)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정치학 박사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연구위원

전라도 들여다보기

송천 양응정과 박피마을

김형주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은 화순 능주에서 부친 교리 양평손(梁彭孫)과 모친 금산김씨(鎭山金氏) 사이에 태어났으며 자는 공섭(公燮),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1540년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1552년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부수찬, 예문관 봉교에 올랐다. 1556년 중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해 사가독서에 들어갔으며, 공조좌랑으로 있을 때 당시 권신이었던 윤원형(尹元衡)에 의하여 김홍도(金弘道)와 함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가 1560년 다시 복직되었다.

그 뒤 홍문관 수찬(修撰)과 진주목사를 거쳐 1574년 경주부윤으로 근무하던 중 진주목사 재직 당시의 부적절한 행실을 이유로 사간원에 의해 탄핵되었다.

1578년에 공조참판으로 기용되어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직후 다시 파직되었다가 성군관대사성에 복직되었고 이조참의를 지냈다. 이처럼 관직의 임명과 파면을 수차례 거듭하게 된 것은 강직한 성품을 가진 탓에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선생은 사문에 능하여 선조 때 조선의 8문장의 한 사람으로 뽑혔으며 높은 효행으로 정문이 세워졌다. 저서로는 '송천집', '유성정수록'(龍城唱酬錄)이 있다.

1571년 관직 은퇴 후 거주한 광산구 어룡동 박산마을은 선생의 처향(妻鄉)으로 조선조 초기 죽산 박씨가 터를 잡고 살던 곳이었으나, 선생이 이곳에 정착하여 그 후손들이 번창하면서 제주양씨의 집성촌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곳은 죽산 박씨들이 많이 살아 '박실'(朴

谷), '박피'(朴山)로 불렸는데, 이 마을에 살던 박중윤이 황룡강변에 양공정이란 정자를 짓고 잉어를 기르면서 살았다. 꿈에 잉어가 나타나 '정자 때문에 도량이 좁아 승천하지 못하니 넓혀주라'고 했다. 소원대로 넓혀주면서 비가 몹시 오는 날 잉어에게 모습을 보여주라고 했으나 꼬리만 몇 번 보이더니 승천하고 말았다. 이 모습을 보고 '잉어가 하늘로 올랐다' 해서 마을의 뒤에 있는 산 이름을 '어등산'(魚登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후에 박씨의 딸이 양응정의 부인이 되었는데 양응정이 이곳에 옮겨와 많은 사람을 해박한 지식으로 감복시켰으므로 마을이름도 그가 부르는 대로 '박산'(博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박산은 지역민들에게 여전히 친근감 넘치는 순우리말인 박피 또는 박매로 통용되고 있

다. 한편, 박피마을은 선생의 깨끗한 절의정신을 이어받아 임진왜란부터 구한말까지 국권침탈의 애적을 물리치는 구국항쟁의 중요한 근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산룡(山龍)·산속(山麓)·산수(山岫) 등 선생의 세 아들이 크게 활약하였고, 구한말 광주지역의 의병도 박피마을 중심의 어등산 일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펼쳐졌다. 완만한 아산지역으로 곳곳에 은거지가 많고 주변 사방으로의 연결도로가 있어 신속한 도피와 외부지원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호남의병으로 활약한 서암(瑞菴) 양진여·설죽(雪竹) 양상기 부자도 이 마을출신 후손의 자손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